

獨逸 農家林의 經營 추세 ①(下)

(바덴-뷔르템베르크州를 중심으로)

宋 英 根 / 임업연구원
이 학 박사

〈전호에서 계속〉

나. 收入 및 支出推移

收入内譯에서 木材販賣部分은 '89년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91과 '92년에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풍토목의 대량 발생에 따른 목재가 하락과 단위면적당 벌채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표 5).

副産物收入中 소경재는 육림시 발생한 것으로서 연료재 등 주로 자가소비이며 일부는 칩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자가소비 소경재도 금전으로 환산하였다. 부산물 중에서 크리스마스츄리와 관상수 판매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狩獵收入이다. 수렵수입은 야생동물에 의한 산림피해보상(주로 농작물)과 야생동물의 산림피해 예방조치(예, 약제방제, 철책보호 등) 비용을 제외한 수렵권판매 수입금을 뜻한다. 수렵권 판매수입은 〈표 5〉와 같이 과거 10년간 평균 ha당 연간 약 6천원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자료에 따르면 독일 평균 10,800원으로 나타나 있어 지역에 따라 수렵권 판매수입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렵권 판매가는 야생동물의 密度가 높은 지역과, 특히 사슴이 있는 지역이 높다.

독일은 野生動物의 保護 增殖을 목표로 1848년부터 “區域狩獵制度”(Reviersystem)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야생동물이 土地所有權者에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주는 수렵권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民法上 野生動物이 無主物로 되어 있어 산주가 狩獵料를 받을 수 없다.

임업생산액중 전체 副産物收入 비율은 평균 10~15%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補助金은 주로 임도개설 등 경영기반조성, 산림의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활엽수 및 혼효림조성과 천연갱신, '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大氣汚染에 의한 山林衰退 및 枯死에 따른 前·後植栽와 施肥, 야생동물

〈表 5〉 收入内譯

단위 : 벌채량 m³/ha, 금액 천원/ha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伐採量*	5.3	6.9	5.4	5.9	5.6	5.9	7.2	14.7	4.0	4.7
木材販賣收入	356	488	326.5	366.5	344	343.5	474.5	966	193	268
비율(%)	92	94	86	86	85	85	87	89	60	70
副産物收入	32.5	31	23.5	23.5	23.5	24	24.5	24	24.5	22.5
비율(%)	8	6	6	6	6	6	5	2	7	6
• 소경재	6.5	8	7.5	7.5	8	7	7.5	6.5	5	4.5
• X-mas 추리	14.5	13.5	7	7	5.5	6.5	6.5	7	7.5	8.5
• 관상수	6.5	4.5	2.5	2.5	4	4.5	4	4	3.5	2.5
• 수렵수입	4.5	4.5	6	6	6	6.5	6	6	7.5	6
• 기타	0.5	0.5	0.5	0.5	-	0.5	0.5	0.5	1	1
補助金受領額	16.5	18.5	35	35	37.5	36.5	41.5	99	105.5	91.5
비율(%)	-	-	8	8	9	9	8	9	33	24
합 계 액	405	537.5	382.5	425	405	405	540.5	1,089	323	382.5

* '83~'92년의 ha당 연간 평균벌채량은 6.6m³

피해 방지를 위한 鐵柵설치 등에 지급되었다. ha당 보조금은 '80년대에는 연간 약 17~42천에 불과하였으나 '90년부터 약 10만으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따라서 전체 수입중 보조금 비율이 '91년에 33%, '92년에 24%로 예년보다 증가되었다. 이처럼 '91년과 '92년도의 보조금이 ha당 106천원과 92천원으로 급증하게 된 것은, 태풍피해에 따른 風倒木의 貯木施設(沈積, 噴霧, 露天貯木)과 태풍피해지 조림비 등의 보조와 아울러 특수한 분야의 보조 이외에 "林業調整補助金"(Ausgleichszulage Wald)의 신설 때문이다. 임업조정보조금이란 독일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그주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보조금으로, 이것은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임업분야에도 임업생산성이 낮고 자연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경영여건이 不利한 지역의 5~100ha 소유산주에게 경영

안정 도모와 농산촌 진흥을 목적으로 ha당 연간 45~60천원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은 정상적인 임업경영을 전제로 함은 당연하다.

또한 산성우피해조치를 위한 보조금은 '80년대 후반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ha당 연평균 약 15천원으로 나타났다.

농가림경영에서 지출을 보면, 재료비가 10년사이에 약 50% 상승한 반면 노무비는 같은 기간 약 20% 상승에 그쳤다. 따라서 m³당 전체 지출도 '83년 52천원에서 '92년에는 77천원으로 약 40%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은 재료비가 약간 증가했으나 노무비는 오히려 감소하여 작업의 합리화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농가림의 지출내역〉

단위 : 천원 / ha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재료비	110	124.5	119.5	148	145	151	172.5	236.5	171	163.5
(%)	40	39	40	46	45	43	45	43	49	45
노무비	167	195	175.5	175.5	177	202	212.5	315.5	178.5	199
(%)	60	61	60	54	55	57	55	57	51	55
합 계	277	319.5	295	323.5	322	353	385	552	349.5	362.5

〈표 7〉 농가림의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 ha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입	389.5	521.5	366.5	425	405	405	540.5	1089	323	382.5
지 출	277	319.5	295	323.5	312	353	385	552	349.5	362.5
조수익	262.5	377.5	232.5	266	245	239.5	352	815.5	142	206.5
순수익	122.5	202	71.5	101.5	83	52	155.5	537	- 26.5	20

〈表 8〉 國有林의 經營結果

단위 : m² / ha 천원 / ha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82~'91 平均
伐採量	5.3	5.7	8.7	6.0	5.9	5.7	6.0	14.1	6.5	6.9
收 入	319	348	457	343	337	310	361	621	241	367
支 出	335	372	411	413	412	410	392	510	432	402
純收益	- 16	-24	48	-70	-75	-100	-31	111	-191	-34

다. 농가림의 경영현황

따라서 농가림의 수입과 지출현황은 〈표 7〉과 같이 지난 10년간 수입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지출은 현저히 증가되어 순수익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농가림경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粗收益은 '93년 ha당 262천원에서 '92년 207천원으로 약간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익은 가족노임과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를 합친 것을 뜻하므로 결국 수입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산림작업은 대부분 農閑期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림경영의 경우 遊休노동력 이용으로 실질소득이 높다. 따라서 '92년의 ha당 조수익이 207천원이므로 20ha 소유산주는 연간 산에서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 농가수입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물론 '80년대초에 비해서는 목재가의 停滯와 생산비증가로 인하여 산림소득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사유림을 경영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표 8〉은 국유림의 경영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ha당 벌채량은 국유림이 연간 평

균 6.9m²으로 농가림의 6.6m²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수입은 농가림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지출이 월등히 많아 적자경영이 되었다. 이는 특히 행정·관리비의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 주요국의 농가림 경영결과 비교

(표 9)는 IFURO(세계임업연구기구) 자

료를 근거로 4개국의 농가림경영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각국의 농가림경영 비교는 조사방법 및 데이터 분석의 차이와 유럽 3국은 경영결과가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는 반면 일본은 재무결과만 나타나 있어 4개국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문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表 9〉 주요국의 사유림경영 결과 비교(1988년)

단위 : 벌채량m², 금액 : 천원

구 분	바덴- 뷔르템베르그주	핀 란 드	오스트리아	일 본
• 벌채량 (ha / 년)	5.9	3.3	4.4	
• 收入 (ha 당)	405	203	256	250
목재판매	344 (85%)	196 (97%)	243 (95%)	145 (58%)
부산물판매	20 (5%)	-	3 (1%)	105 (42%)
보조금, 기타	41 (10%)	7 (3%)	10 (4%)	-
• 지출 (ha 당)	353	31	203	106
가족노임	188 (53%)	14 (44%)	104 (50%)	-
기타비용*	165 (47%)	17 (56%)	102 (50%)	106 (100%)
• 경영결과 (ha 당)				
조수익	239	85	153	144
순수익	52	72	52	144

*기타비용 : 타인노임, 관리비, 재료비, 기타

농가림의 소유규모는 유럽 3국이 5~200 ha, 일본은 500ha까지이다. ha 당 벌채량은 바덴-뷔르템베르그주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5.9m²과 4.4m²으로 높은 반면 핀란드(3.3m²)는 상대적으로 낮고 일본은 나타나 있지 않다.

수입에서는 우선 목재판매에 의한 主産物收入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바덴-뷔르템베르그주는 97%~85%까지 매우 높은 반면 일본은 58%로 다른 3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副産物收入은 유럽 3국이 전

혀 없거나 5%까지로 매우 낮고 일본은 42%(주로 버섯판매수입)로 매우 높은 편이다. 補助金比率은 독일이 전체수입의 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순이나 일본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지출은 바덴-뷔르템베르그주,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가족노임비율은 바덴-뷔르템베르그주가 53%로 가장 높고 일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수익도 바덴-뷔르템베르그주가 239천원으로 오스트리아 153천원,

일본 144천원보다 현저히 높아 독일 농가림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핀란드는 자연조건 때문에 벌채량이 적고 주로 임목매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경영결과는 순수익이 유럽 3국은 ha당 연간 52~72천원으로 비슷하나 일본은 144천원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조사방법, 데이터분석 등의 차이로 다른 3국과 직접 비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結 言

最近 舊西獨의 林業은 經營費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木材價는 停滯되어 林業收益性이 점차 악화되고, '80년대 초반부터는 大氣汚染被害로 인한 山林황폐화, '90년봄의 극심한 颱風被害와 이로인한 病蟲害 擴散등으로 임업경영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태 때문에 私有林의 존재의문과 함께 나아가 독일이 200여년 이상 확립시켜온 山林의 保續生産體制가 무너지지 않을까 대다수의 임업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農家林은 연간 ha당 약 207천원의 粗收益을 얻고 있으므로 20ha 산림소유자라면 연간 ha당 400만원 이상의 조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임업경영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산림소유자의 산림을 경영하려는 의지와 함께 높은 林木蓄積, 충분한 林道, 이에 따른 機械化, 技術指導와 林業調整補助金 등 政府의 積極적支援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持續的인 林業經營과 나아가 農山村住民의 所得向上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유림은 녹화만 되었지 낮은 임목축적, 영세한 소유구조, 거의 전무한 임도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렇게 취약한 임업생산기반으로는 農家(林家)의 소득은 꺾이기 어려우며, 녹화된 산림의 육성·관리의 不實을 초래해 그동안 힘들여 가꾼 산림환경의 황폐를 불러일으킬 것이 明若觀火하다. 그러므로 工場에서 製品을 生産하기 위한 工場施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업생산기반 構築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산림의 71%인 사유림경영을 진흥시키는 길이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산림환경의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 일 것이다.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더 더욱 무서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